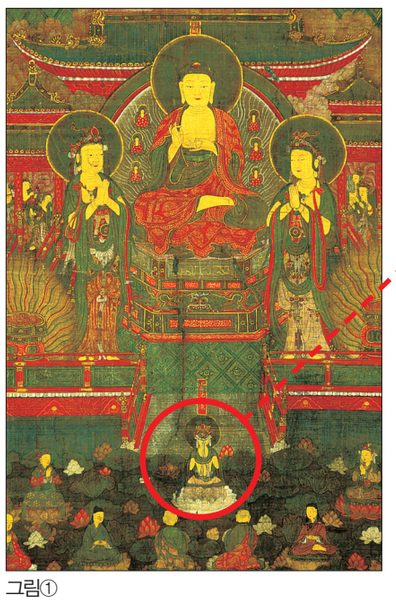
강소연 교수의 고려불화, 마이크로 세계 24 지은원 소장 〈관경16관변상도〉 ②



▶ 한줄 요약
극락왕생에도 등급이 있다. 이는 〈무량수경〉 등을 도상화한 〈관경16관변상도〉을 보면 알 수 있다. 도상에서는 연꽃의 여덟이나 영접하는 보살의 수를 통해 표현된다.

그대 근기따라 '극락왕생'합니다

'극락왕생' 에서는 사람에게 등급을 매긴다. 〈무량수경〉에는 상(上) · 중(中) · 하(下)의 3등급으로, 〈관무량수경〉에서는 상 · 중 · 하 3등급에서 각 등급 마다 다시 상 · 중 · 하로 나누어 총 9등급이다. 평등을 말하는 불교에서 사람에게 등급을 매기다니! 불교는 평등을 말한다. 그 이유는 모든 존재의 본질이 연기(緣起)이기 때문이다. 이것과 저것이 만나 덩어리를 잠시 이루다가 다시 이것과 저것으로 해체된다. 이것을 연기-연생-연멸이라 한다. 나와 세상은 온통 연기-연생-연멸의 무상한 파도일 뿐이다.



그림①



그림②

그림①. 일본 교토 지은원 소장 고려불화 〈관경16관변상도〉의 하단 중간.

그림②. 지은원 소장 고려불화 〈관경16관변상도〉의 상품상생 모습 중 상품의 연못 장면. 상품에 드는 순간 무생법인을 깨닫게 된다.

〈무량수경〉도상화한 〈관경변상도〉
'극락왕생'할 수 있는 조건 표현해
낮은 品일수록 영접 존상 수 줄어
'왕생의 조건' 만만치 않음 알아야

불교 '평등' 말하는 이유는?

이렇게 따지자면, 지금 필자의 책상에 있는 '볼펜' 이나 '나' 나 동격이다. 볼펜과 나는 평등하다. 그 이유는 볼펜이 둥근 볼 · 볼 홀더 막대기 · 잉크 · 플라스틱 겉 튜브 등의 부품으로 구성돼 있듯, 나 역시 무명 · 행 · 식 · 명색 등 12연기의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모든 존재는 그저 조건들의 만남이라는 진리. 연기하는 실상(實相)을 보면 거기에 개념 또는 망상이 붙을 수가 없다. 목전에 현존하는 이러한 실상을 '법(法)' 이라 한다.

그렇기에 당연히 차별은 있을 수 없다. 무상하게 연기하는 실체를 보면, 거기에 외모 · 나이 · 출신 등 개념과 차별이 들러붙을 자리는 아예 없다. 무지 속 우리는 평생토록 직책과 직업 · 출신과 학벌 · 빈부 · 인종 · 성별 · 연령 등 사회적 편견과 멸시로 괴롭힘을 당하고 또 주며, 스스로와 타인을 괴롭히며 살고 있다. 그런데 불교에서까지 사람을 9품의 등급으로 나누다니! 그 실체를 알아보자.

'9품 왕생' 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았을 것이다. '품(品)' 이란 등급 또는 차별을 말한다. 대표적 벼슬의 등급으로 중국 당나라의 9품 제도가 있다. 또 동양 회화의 세계에도 예술성의 경지를 신품(神品) · 묘품(妙品) · 능품(能品) · 일품(逸品)의 4등급으로 나눠 평가한다. 물론 신품(또는 무상신품)은 더 이상 높은 것이 없는 최고의 경지를 일컫는다. 그런데 이 같은 등급을 매긴 〈무량수경〉의 대목을 보도록 하자.

"지극한 마음으로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이는 그 근기(根機)와 수행(修行)에 따라서 상 · 중 · 하의 차별, 즉 가장 우수한 무리(上)와 중간층의 무리(中) 그리고 가장 낮은 층의 무리(下) 등 3등급으로 구별된다.(후략)"

이상의 내용에서 상중하의 3등급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그 근기와 수행에 따라서' 이다. 근기란 불교의 진리를 수용하고 실천하는 능력을 말하며, 다른 말로 법기(法器)라고도 한다. 각 중생이 전생에서부터 닦아서 이미 내장하고 있는 수행 역량 또는 수행 용량을 말한다. 그 용량이 작으면, 하근기이고 그 용량이 크면 상근기이다. 불성을 밝히는 인(因)을 얼마나 내 무의식에 저장하였는냐에 따라, 그 과(果)로서의 근기가 결정된다. 즉, 수행한 만큼 근기의 등급이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수행과 그에 따른 근기를 들어 등급을 나누는 이유는 무엇일까.

'근기와 수행' 정도에 따라

잘못을 들추고 차별하기 위함이 아니다. 내 현주소를 알아 더 수행하라는 이야기이다. 불교에서 중생을 보는 단 하나의 잣대, 근기. 사회적 높고 낮음 상관없이 남녀 차별 없이, 불교에서는 그 중생이 얼마만큼 수행 능력이 있는지만 본다. 그래서 아무리 지위 직책이 높아도 부처님의 눈에는 하근기일 수 있고, 또 사회적 편견으로 업신여김을 당하는 사람일지라도 상근기일 수 있겠다. 이렇게 근기에 따른 자질과 수행 정도를 정확하게 짚어주는 이유는, 본인 수준에 따라 구제 방편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물론, 자기 단계를 스스로 자각해 거기에 맞게 수행해 나가라는 의미도 내포돼 있다. 내 현주소의 등급은 〈무량수경〉을 비롯해, 〈관무량수경〉(상배관 · 중배관 · 하배관)에는 더욱 상세하게 언급되어 있다. 내가 어느 등급인 궁금하면, 〈관무량수경〉의 해당 부분에 9품으로 나누어 언급해 놓은 자질의 내용을 보고, 객관적으로 어디에 해당하는지 가늠해보면 된다. 최상급에 해당하는 상품상생(上品上生)의 조건을 요약 게재하면 다음과 같다.

"상품상생 상품상생이라는 것은 세 가지 마음(三種心)을 일으켜 극락왕생하는 것을 말한다. 첫째, 솔직하게 정성을 다하는 마음(至誠心)이요, 둘째는 깊게 믿는 마음(深信心)이요, 셋째는 모든 선행을 회향하는 마음(廻向發願心)이다."

그리고 어떠한 이가 이에 해당하는지 "자비심이 깊어 살생을 하지 않고 모든 계율을 지켜 행동이 올바른 사람, 대승경전을 지성으로 독성하고 6가지 염원을 수행하고, 선근 공덕을 회향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자신 깜냥 따라, 극락체험 정도 달라

우리나라 극락 그림을 대표하는 고려불화 〈관경16관변상도〉의 하단(지난 연재 〈그림①〉 참조)에는, 한 가운데에 상품인의 연못이 크게 자리하고(본 연재 〈그림①〉), 좌우로 우측에 중품인의 연못, 그리고 좌측에 하품인의 연못이 그려져 있다. 그리고 상품상생인은 가운데 연못의 정중앙에 멀리서도 금방 구별되게끔 크게 그려져 있다(〈그림②〉). 커다란 하얀 연꽃에 이미 보살의 뒷모습을 한 상품상생이 보인다. 여타 연화화생의 존상보다 몸체가 더 크고 화려하다. 머리에 보관을 썼고, 천의(天衣)를 입었다. 특히 머리의 녹색 광배로 그려진 두광(頭光)은 여타 다른 연화화생에게는 없는 요소이다. 이렇듯 깨달음의 장엄과 깨달음의 빛이 이미 몸체에서 뿜어져 나온다. 그리고 머리 위에는 '상품지상생(上品池上生)' 이라고 붉은 사각 바탕에 금 글씨로 명기돼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상품상생의 앞을 보면, 누각의 난간이 계단처럼 활짝 열려있고 바로 아미타삼존과 마주보게 배치하였다는 것이다. 아미타삼존의 영역과 연못의 영역이 경계로 나뉘어 있지 않고, 뚫려서 바로 통하게끔 묘사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관세음보살은 금강대를 가지고 대세지보살과 함께 수행자 앞에 나타나고, 아미타불은 찬란한 광명을 나투어 그 수행자의 몸을 비추어 영접한다"라는 문구처럼, 관세음과 대세지 옆에는 금강대가 마련돼 있으며(〈그림①〉) 아미타삼존이 모두 함께 수행자 앞에 찬란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9품의 아래로 내려갈수록, 극락세계에 영접하러 나투는 존상의 숫자가 줄어들고 또 왕생할 때의 조건도 점점 낮아진다. 예를 들면, 상품상생은 왕생할 때 궁극의 '무생법인' 을 깨달아버리지만, 상품하생은 환희지에 머물 따름이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연꽃이 열리지 않아 그 속에 갇힌 채로 대기하는 기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예를 들면, 상품하생의 경우 연화화생을 순간 했지만 금새 다시 연꽃이 오므라 들어 버린다. 그리고 21일이 지나야 뿌옇게 보이지 않던 극락의 풍경이 분명히 보이기 시작한다.

중품의 하한선 문턱인 중품하생에라도 해당되려면 "선량하여 부모에게 효도하고, 세상사람들에게 인자하게 행동한 사람"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여기에도 해당 안 되면, 하품의 부류이다. 하품상생의 조건은 "비록 대승 경전을 비방하지는 않는다하더라도, 어리석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하고도 참회하거나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본인의 이기적인 행동이 상대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었지만, 정작 본인은 그것을 모르는 경우이다. 대부분의 중생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래서인지 하품상생이 연꽃에 대기하는 기간은 49일이다. 우리가 49재를 행하는 이유가 우리 근기에 맞춘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보다 더 아래의 근기인 하품중생과 하품하생의 경우 연꽃이 닫혀있는 기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하품중생은 6겁이고, 하품하생은 무려 12대겁이 지나야 연꽃이 열린다.

〈관경16관변상도〉의 하품의 연못에서는 연꽃 봉우리가 닫혀 갇혀있는 중생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연꽃 봉우리가 열리지 않는다는 것은 깨달음에 접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깨달음의 자유와 해탈에 결코 접하지 못한 채로, 그 무량겁의 세월을 보내야 한다니. 나무아미타불 10번 만 불러도 극락왕생한다는 아미타신앙. 하지만, 들여다보면 '왕생의 조건' 이 결코 만만치 않다. 〈끝〉

〈중앙승가대 불교문화재학과 교수〉

www.boryeon.com
도량장엄 전문기업
보련기획
도량장엄등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탑
연등자동승강장치
원불전, 인등, 위패
각종 시설물 제작·시공
보련기획 BORYEON
010-5381-9355
031-526-220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문현로 189번길 27
도 량 장 엄 등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탑
연 등 자 동 승 강 장 치
원 불 전
인 등
위 패